

'2024 보성군통합대축제' 지역축제 새 지평 열었다

보성다향대축제·마라톤대회 등 9개 행사 통합 개최 전통·현대 요소 결합...드론 라이트쇼 등 볼거리 풍성

보성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보성다향대축제를 포함한 9개의 축제를 통합 개최하며 지역 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3-7일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열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의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보성군민의 날을 시작해 하루 간격으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립산 철쭉문화행사 ▲보성어린이날 ▲보성녹차 마라톤대회 ▲한국유태미스트 전국오픈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보성군의 대표 행사 9개를 통합해 선보여 역대급 인파를 불러모았다.

축제 기간엔 약 21만명이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다향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율포솔밭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축제 첫날 개막식은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지난 2월 자매도시를 맺은 하동군과 '다원결의(茶園結義)' 퍼포먼스, 청년도약보성 퍼포먼스 등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는 차의 대중화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차 문화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했다.

보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차(茶) 문화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케이-티(K-Tea) 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했다.

보성군, 하동군, 중국, 일본 등의 차 문화관, 차잎 따기, 차 만들기, 차밭 보물찾기, 차밭 피크닉, 전통다례 시연, 말차각테일 체험, 차 로스팅 체험, 차 음식 시식회, 대한제국 황실(家)의 차 도구전 등 보성만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지난 3-7일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등에서 열린 가운데 약 21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보성군 제공>

이 밖에 제102회 보성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8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 대회는 5천여명이라는 역대 최대 참가율을 자랑했다.

또 전국 최대 철쭉 근라지에서 펼쳐지는 제20회 일립산 철쭉 문화축제는 산신 제례를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 산림문화 사진 전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매일 저녁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데일리 콘서트와 보성 드론라이트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보성군통합대축제로 지역 전체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를 규모화, 체계화해 더 새롭고 하나 된 보성군의 모습을 널리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2025 전남체전 준비 본격 '시동'

전담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부서별 준비사항 점검

장성군이 2025년 전남체전 개최 준비에 본격 나섰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영호 부군수·부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전담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선 올해 영광군에서 열렸던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 답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체전 개최를 위한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숙박·음식·교통 분야 준비가 대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성군은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주기적인 보고회를 열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인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영광에서 열린 제63회 전남체전·제32회 장애인체전 폐회식에서 대회기 인수와 차기 개최지 후보단 운영을 통해 장성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2025년 양대 체전 성공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WBO 타이틀매치 성공 개최

스포츠 문화 발전·지역 이미지 제고 기대

고흥군은 "최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세계복싱 WBO 타이틀매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는 오후 3경기와 타이틀매치 3경기로 총 6경기를 치렀다. <사진>

특히 제4경기인 우리나라 강종선 선수의 타이틀매치는 대회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으며,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강 선수는 WBO 글로벌 타이틀매치 챔피언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흥군은 국제적인 무대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외 많은 복싱 팬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한국복싱연맹 관계자는 "고흥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많은 응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고흥에서 더 좋은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곳은 날씨에도 세계복싱 WBO 타이틀매치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와준 관광객에게 감사하다"며 "고흥군은 복싱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명문 고장으로, 앞으로도 복싱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KBSN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됐고,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 태국 등 세계 각국에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광양경제청, 美 투자유치 활동 전개

시카고·LA 방문...관광·레저·부동산 투자 기업 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지역 관광·레저 및 부동산 투자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9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전남도,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합동으로 미국의 주요 관광도시이자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인 미국 시카고와 LA를 방문했다. 이번 활동에서 광양경제청은 여수 경도지구, 화양지구, 하동 두우지구로 3개 관광 단지를 구분해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

시카고에서는 국내 시장에도 잘 알려진 부동산 중합회사인 존스 랑 라살(JL

L)과 숙박 시설에 특화된 더브릭튼 그룹(The Britton Group) 등 잠재 투자사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인 씨에프 인더스트리즈(CF Industries)를 방문해 전남도의 청정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씨에프 인더스트리즈는 최근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개프론 그룹 관계자는 "중국 상하이 수변 도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장차 아시아 시장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시 "봄철 수두·유행성염병 주의하세요"

대면활동 증가로 감염병 확산...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여수시는 9일 "유치원, 학교 새학기 시작 이후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학령기 전년 동기 대비 수두 37.6%, 유행성이하선염 24%가 증가 발생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봄(4-6월)에 환자 발생이 많으며,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 상 학교 내에서 유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고 각종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발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환자 발생 시, 전염기 동안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씻기·기침예절·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한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하기, 기침예절·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감염의심 시 진료 후 등교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은 코로나19

담양군, 죽화경 장미축제 팡파르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꽃과 정원의 어울림' 주제

담양군은 9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꽃과 정원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데이지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봉산면 유산길 71에 위치한 죽화경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서로 다른 꽃들이 정원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보는 사람에게 색다른 감성을 느끼게 한다. <사진>

죽화경은 360개의 장미 기둥을 소재로 한 전통 복합 정원으로 사람과 정원이 하나가 된 것 같은 풍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죽화경의 5월은 정원을 수놓은 장미, 데이지를 비롯해 꽃창포, 철쭉, 붓꽃 등이 서로 조화롭게 피어난다.



담양군 관계자는 "꽃과 신록의 계절 5월, 죽화경 데이지 장미축제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죽화경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매출 10억 돌파

미니 파프리카 등 인기...17일까지 전 상품 20% 할인

화순군은 9일 '화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올해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올해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도 최고 매출 16억 원 달성 대비 2배 이상 빠른 달성 속도다.

화순팜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

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화순팜을 알리고, 화순 농특산물인 미니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한우, 보리굴비, 장어 등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며 화순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했다.

현재 화순팜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가정의달 감사의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

대 5만 원)과 신규회원에게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팜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욱 도약하는 화순팜이 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순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16일부터 7월말까지

구례군은 9일 "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등 군민들의 건강행태와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표본 가구로 선정된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전자 조사표

(태블릿PC)를 이용해 1대1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에 공표되며, 지역보건요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나 지역보건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요계획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며 주민들은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